

## 조선후기 通信使 隨行畫員의 파견과 역할

洪善杓\*

### 차 례

- I. 隨行畫員 파견의 定例化
- II. 使節團의 구성과 隨行畫員의 선발
- III. 隨行畫員의 역할

### I. 隨行畫員 파견의 定例化

근세 한·일간 회화교류는 17·18세기의 조선후기와 江戸時代를 통해 모두 12회에 걸쳐 이루어진 通信使行을 따라 일본을 왕래했던 화원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圖畫署의 전·현직 요원들 중에서 선발된 이들 수행화원은 사절단의 繪事를 담당했던 전문화가로서, 당시 두나라의 회화교류를 촉진시키고 회화 관계를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와 같이 외국으로 가는 사절단에 화가를 전문 員役으로 참여시켜 동행했던 제도는 중국에선 없었던 듯, 성절사행의 正使를 지낸 李景奭(1595~1671)은 1655년(효종 6)의 통신사행 정사로 일본을 다녀온 南龍翼(1628~1692)의 『扶桑詩畫帖』 발문에 “옛부터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 사신을 보낼 때, 화공을 대동케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다”고 적은 바 있다.<sup>1)</sup> 그러나 일본의 경우 『續日本後紀』에 ‘遣唐畫師’란 명칭이 발견되는 사실로 보아 중국과 공식적으로 외교관계를 맺었던 9세기 전반경에 일시적으로 시행되었던 것 같다.<sup>2)</sup> 우리 나라에선 郭若虛의 『圖畫見聞誌』 권6 「高麗國」조의 “丙辰冬復 遣使崔思諒入貢 因將帶畫工數人”과 『高麗史』 권122 「李寧列傳」의 “徽宗嗟賞曰 比來高麗畫工隨使至多矣”라는 기록 등으로 보아, 아마도 고려와 북송 간의 문화교류가 본격화되었던 11세기 후반경부터 중국사행을 통해 제도화하기 시작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 한국미술연구소 소장

1) 李景奭, 『白軒集』 권32, 「跋南壺谷扶桑詩畫帖」, “獨不聞 夫古昔華人之使外國者 挾畫工而行”

2) 『續日本後紀』 承和三年閏五月; 平田 寬, 『繪佛師の時代』 史料編(中央公論美術出版, 1994), 7쪽 참조.

그러면 일본사행의 경우 언제부터 화원을 대동하는 제도를 정례화하기 시작했을까. 1865년(고종 2) 편찬된 『大典會通』의 「禮典」, 「雜令」조를 보면, “原典” 즉, 1484년(성종 15)에 편찬된 『經國大典』에 전거하여 “通信使一行 堂上譯官三員 堂下譯官九員 兩醫司醫員二員(或加定一員) 寫字官二員 畫員一員 并差送”으로 기록되어 있다.<sup>3)</sup> 조선말기에 기존의 법서들을 정리하여 펴낸 종합법전인 『大典會通』의 撰者는 일본사행의 화원대동규정이 조선초기부터 있어온 것으로 간주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조선초기와 室町時代의 한일회화교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당시 派日되었던 사절단에 화원이 정례적으로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대부분 추정하고 있다.<sup>4)</sup>

그러나 현존하는 15·16세기의 사료 중 당시의 일본사행에 화원을 파견하는 법규나 사례를 입증해 주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대전회통』의 撰者가 원전으로 삼았던 『경국대전』의 「禮典·雜令」조에도 이러한 기록이 수록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1494년(성종 25)에 개정 간행된 『大典續錄』과 1543년(중종 38)에 편찬된 『後續錄』등의 법전에도 보이지 않는다.<sup>5)</sup> 특히 조선초기를 통해 가장 상세하고 또 유일한 通信使事目으로 생각되는 1477년(성종 8)에 예조에서 上啓한 「日本通信使之行應行諸事」에도 화원의 파견조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sup>6)</sup> 이 事目은 乙未年 즉, 1475년(성종 6)의 通信使條例에 의거하여 책정된 것으로, 足利幕府와 벌였던 對日外交使행의 완결된 형태 내지는 기본 법규로서의 의의를 지니고 있다.<sup>7)</sup> 따라서 앞서 열거했던 사료들을 통해서 볼 때, 조선초기의 일본사행에 화원이 수행원으로 동행했을 것이라는 종래의 추측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한 인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라 하겠다.

지금까지 알려진 자료 중, 화원이 사절단의 일원으로 일본을 다녀 온 사실을 수록하고 있는 문헌 중 가장 이른 것은 德川幕府와의 국교재개 이후 최초로 파일되었던 1607년(선조40)의 使行 副使 慶暹(1562~?)이 저술한 『海槎錄』으로, 이 기행일기의 마지막 부분에 실려있는 「同槎員役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sup>8)</sup> 그런데 1607년의 丁未使行이 庚寅年 즉, 1590년(선조23)의 통신사행 사목에 크게 의존하여 추진되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수행화원의 差遣은 이미 경인사행 때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3) 『大典會通』 권3, 「禮典雜令」

4) 熊谷宣夫, 「芭蕉夜雨圖考」, 『美術研究』 8號(1932. 8) 19쪽; 松下隆章, 「李朝繪畫と室町水墨畫」, 『日本のなかの朝鮮文化』 18号(1973. 6) 14쪽; 安輝濬, 「朝鮮王朝初期의 繪畫와 日本室町時代의 水墨畫」, 『韓國學報』 3号(一志社, 1976. 여름) 6쪽, 참조.

5) 『朝鮮王朝法典集』 所收의 『經國大典』 권3, 「禮典雜令」; 『大典續錄』 권3, 「禮典雜令」; 『後續錄』 권3, 「禮典雜令」 참조.

6) 『成宗實錄』 권100, 10년 기해, 정월 정축조 참조.

7) 李鉉淙, 『朝鮮前期 對日交涉研究』 (韓國研究院, 1964) 301~302쪽 참조.

8) 慶暹, 『海槎錄』 下, 「同槎員役錄」 (『海行摠載』 II, 339쪽) 참조.

『宣祖實錄』 丙午年(1606) 十月 癸卯(8일)조의 다음과 같은 기록이 주목된다.

備邊司啓曰 …… (일본으로 가는 사절단) 일행의 員役과 예물을 모두 前例대로 마련하라고 윤택히 썼 습니다. 원역의 수는 의거할 전례가 없어서 경인년에 다녀 온 사신에게 물었으나 기억이 분명하지 않 아 대강만을 말하므로 그 數目を 가지고 각 該司에 문의했더니, 司譯院·圖畫署·兩醫司 등에서는 경 인년에 차송되었던 인원을 잘 기억하는 자가 있었습니다.<sup>9)</sup>

이 기록에 의해 1590년의 경인년사행 때 도화서에 소속된 화원이 수행원으로 파견된 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겠다. 그러나 足利幕府에 파견하던 사절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화원을 豐臣政權의 요청으로 派日된 통신사일행에 어떠한 연유로 동행시키게 되었고, 또 누가 선발되어 다녀왔는지는 관련 기록이 없어 구체적인 파악이 어렵다. 다만, 당시 寫字 官으로 도일했던 李海龍의 경우, “일본의 승려들이 자못 문자를 알기 때문에 그들과 만나 서로 글을 주고 받는 일이 있다면 글씨도 또한 拙한 것을 보여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던 왕명을 받들어 선발되었던 점으로 보아, 화원도 이와 유사한 목적에서 대동하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sup>10)</sup> 그리고 1590년의 경인통신 사행은 새로운 통일정권을 수립한 일본 국정을 탐색하고 특히 일본군의 내습 가능성에 대한 탐지가 주임무의 하나였으므로,<sup>11)</sup> 이와 관련된 視覺的 자료의 수집을 위해 그 곳의 지형이나 풍물 등을 圖繪할 전문화가의 동행이 필요했던 것이 아닐까하는 추측도 해볼 수 있겠다.

이와 같이 일본으로 보내는 사절단에 화원을 대동하는 제도는 1590년의 경인사행 때 책정된 이후, 17·18세기의 통신사행을 통해 정례화되었으며, 이에 관한 규정이 1714년 (숙종40) 경에 찬술된 『通文館志』와 1805년(순조5)의 『增正交隣志』를 거쳐 1865년에 종합법전으로 편찬된 『大典會通』에까지 기재되었던 것으로 정리된다. 그리고 이러한 화원 대동제도의 정례화에 따라 도화서의 전·현직 화원들이 양국 간 회화교류의 주역으로 활 약하게 되었으며, 이같은 현상은 근세 한일회화교류사의 한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 II. 使節團의 구성과 隨行畫員의 선발

사절단의 구성은 德川幕府의 명을 받아 일본의 對朝鮮 외교를 담당했던 對馬藩에서 通

9) 『선조실록』 권204, 39년 병오, 10월 계유조, “備邊司啓曰 …… 員役之數則無前例可據 問于庚寅年 往來使臣 所記亦不分明 略言槩 故將此數目 又問于各該司 如司譯院圖畫署兩醫司等處 則其中或有能記 庚寅年差送之數者”

10) 金誠一, 『海槎錄』 2, 「贈寫字官李海龍并序」, “聖教若曰 聞倭僧頗識 … 爾等若與之相值有唱酬等事則書法亦不宜示拙也爾等 其留念乎 臣等俱以庸陋 素乏文墨之技 而臨事茫然 慮不及此聞 命震懼相與求所以 命者 以寫字官李海龍爲請 上可之”

11) 三宅英利, 『近世日朝關係史の研究』 (文獻出版, 1986) 78~82쪽, 참조.

信使請來差倭(修聘參判使)를 보내 사행을 요청하면 禮曹의 건의에 의해 備邊司에서 이를 검토하여 왕의 승락을 받은 후, 正使·副使·從事官 등 三使의 임명과 더불어 착수되었다.<sup>12)</sup> 三使는 예조에서 議政府와 의논하여 각각 3명씩의 후보명단을 올리면 왕이 落點하여 결정했으며, 대체로 사행 출발 5~12개월 전에 이루어졌다.<sup>13)</sup>

이와 같이 三使가 선정되면 사절단 구성에 필요한 인원을 직무별로 인선했는데, 製術官·譯官·書記·醫員·寫字官·畫員·子弟軍官 등의 주요원역들은 三使임명 후 1개월 이내에 뽑았던 것 같다.<sup>14)</sup> 이들 주요원역들은 삼사와 함께 외국에 파견되어 국가적 용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나라의 위신을 높여야 했기 때문에 해당분야의 인재들 중에서 “極擇”과 “精擇”의 원칙에 의해 엄선되었다.<sup>15)</sup> 특히 朝廷에서는 유교적 가치기준이나 小中華意識에 기초하여 일본에 비해 문화적 선진국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또 일본측의 요구도 있었기 때문에 學識과 함께 詩文書畫에 대한 識見이나 재능 및 갖가지 技藝를 지닌 인물들을 차출코자 하였다. 이러한 경향에 대해서는 조선후기의 대표적 실학자인 朴趾源(1737~1805)의 다음과 같은 글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일본의 關白이 새로 들어서면 …… 우리나라에 사신을 파견해 주기를 청하되 마치 上國의 소명을 기다리듯 공손하게 하였다. 이에 우리 조정에서 文臣 중 三品 이하를 골라 뽑아 삼사를 갖추어 보낼 적에 그 수행원으로 뽑힌 사람도 모두 宏辭와 博識者들이었다. 天文·地理·算數·卜筮·醫術·觀相·武力의 인재로부터, 통수·거문고의 달인·만담꾼·해학꾼·소리꾼·술꾼에다가 장기·바둑의 능수·말타기·활쏘기의 선수에 이르기까지 나라 안의 내노라는 자들이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詞章과 書畫를 가장 중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저들은 조선사람 작품 중 한 글자라도 얻기위해 식량 없이 천리길을 가도 좋다는 풍조였기 때문이다.<sup>16)</sup>

이와 같이 시문서화의 기능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인식되었기 때문에 삼사의 자제군관은 물론 伴人들까지 能詩者로 뽑았으며, 寫字官의 경우 “書法最爲精熟”者를 차송했을 뿐 아니라, 2명을 대동하는 규정보다 많은 3~4명까지 파견하기도 하였다.<sup>17)</sup> 특히 書에 있어서

12) 『春官志』 권2, 「通信使一行先後節目」 및 『通信使謄錄』 1冊~14冊 참조.

13) 南龍翼, 『扶桑錄』 上, 「扶桑日錄」, “孝宗朝歲甲午 日本關白源家綱新立 請遣通信使 朝廷許之 禮曹于都堂 擬入三使望 十月二十九日 天點始下”

14) 계미사행의 경우 1643년 1월 6일에 三使가 임명되었고, (『인조실록』 권44, 21년 계미, 정월 신미조) 대동원역은 같은 해 2월 11일에 정하였다. (『동신사등록』 1책, 계미 2월 11일조)

15) 『선조실록』 권204, 39년 병오 10월 신해조에 나라의 체모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수행원의 ‘極擇帶率’이 거론된 이후 매회 동신사행 때마다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도록 왕명으로 시달되었다.

16) 朴趾源, 『燕巖集』 권8, 「虞裳傳」, “日本關白新立 …… 請使於我 若待命策之爲者 朝廷極擇文臣三品以下 備三价以送之 其幕佐賓客 皆宏博識 自天文地理算數卜筮醫相武力之士 以至吹竹彈絲謔浪戲笑歌呼飲酒博奕騎射 以一藝名國者 悉從行而 最重詞章書畫 得朝鮮一字 不齎糧而適千里”

는 사자관의 증과 이외에도 “當今之天下一筆”로 극찬을 받았던 金啓升(1694~?)과 같은 명필가를 別書寫로 선발하여 대동했을 정도로 중시하였다.<sup>18)</sup> 이에 비해 중국사행에선 사자관이 긴요한 원역이 아니라고 하여 1751년(영조27) 2명 중 1명을 減額시킨 바 있어 좋은 대조를 이루었다.<sup>19)</sup> 그림에 있어서도 화원의 증과가 있었지만, 그외에 사행원들 중에도 正使 趙泰億을 비롯하여 從事官 李景稷, 漢學 宋禮修, 자체군관 趙日章, 洪世泰, 李重叔, 역관 李彦楨, 下文圭 등과 같이 시서화를 겸비한 인사들이 적지않게 섞여 있었다. 이처럼 통신사일행은 학식과 시문서화와 기예를 중시한 문화사절단의 성격을 띠고 구성되었으며, 총인원은 1811년(순조11)의 對馬島易地行禮時의 328명을 제외하면 428명에서 504명에 이르는 매회 평균 475명의 대규모로, 15세기의 통신사에 비해 5배에서 10배가 넘는 인원이었다.<sup>20)</sup>

그러면 이들 사절단원 중, 근세 한·일간 회화교류의 주역으로 활약했던 수행화원의 선발방법과 원칙 및, 그 실상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六典條例』에 의하면 통신사 수행화원은 “正使自辟”, 즉 使行의 정사가 선정한 다음 왕에게 啓請하여 승인을 얻어 차정한다고 하였다.<sup>21)</sup> 그러나 실제로는 원역의 경우 『通信使謄錄』에 “各該司捧送”이라 명기되어 있고, 또 이들의 “帶去之事”에 대해 통신정·부사들이 “各衙門差出之事”라고 답했듯이 수행화원도 해당 관서인 도화서에서 직접 차송하는 경우가 많았다.<sup>22)</sup> 그리고 사자관 등의 차출과정을 통해 유추할 수 있듯이 정사의 추천시 예조와 소속 관청과의 협의 대부분 거쳤던 것으로 생각된다.<sup>23)</sup>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화원을 선발하는데는 무엇보다도 우선 “善畫者擇送”을 원칙으로 하였다.<sup>24)</sup> 그리고 일본측에서도 “能書畫之人帶來”를 강하게 희망하였다.<sup>25)</sup> 이러한 요구와 원칙은 양측의 합의 하에 확정되었던 「通信使講定節目」에 요약되어 있다. 이들 기록을 걸러낸 초기 3회를 제외하고 매회별로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sup>26)</sup>

17) 『승정원일기』 84책, 선조21년 계미 정월 11일조, “承文院啓曰 以禮曹啓辭 令此通信使帶行員役極擇與否 令各衙門書啓 傳曰 知道事傳教矣 本院寫字官官中 朴宗賢金義信 書法最爲精熟 入所其知使臣方爲本院副提 故自擇定之意 致啓 傳曰 知道” ; 병자·을미·무진사행시 사자관이 3명 또는 4명 차송되었다.

18) 金啓升에 대해서는, 李德懋, 『靑莊館全書』 권49, 「耳目口心書」 2, 金啓升條 참조.

19) 『영조실록』 권73, 27년 신미 10월 정묘조 참조.

20) 매회 통신사절단의 총인원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견해가 다른데, 여기서는 三宅英利의 앞 책에 의거하였다.

21) 『六典條例』 권28, 「圖畫署」 참조.

22) 『통신사등록』 1책, 계미 1월 5일, 「信使節目」 ; 『선조실록』 권204, 39년 병오, 계묘, 정미, 신해 ; 『春官志』 권2, 「通信使應行節目」, “醫員二員 書員一員 … 依甲子年例 令各該司擇送”

23) 『승정원일기』 84책, 인조21 계미, 정월 11, 12일조 참조.

24) 『通文館志』 권6, 「交隣」, 通信使行條 참조.

25) 『순조실록』 권13, 10년 정오, 11월 갑오조 참조.

26) 『통신사등록』 1~14책 ; 『邊例集要』 권18, 「信使」 ; 『增正交隣志』 권5, 「信行各年例」에서 발췌.

- 丙子通信使 (1636년) “善書者率來事”  
 癸未通信使 (1643년) “儒者善寫者畫員等數少 今番則各色加一二人帶來 亦爲極擇…先年入來如蓮潭者 擇送可也”  
 乙未通信使 (1655년) “畫員極擇”  
 壬戌通信使 (1682년) “能文能書能畫 有膂力者帶來”  
 辛卯通信使 (1711년) “能文能書能畫人 依例帶來”  
 己亥通信使 (1719년) “良醫與畫員極擇 年老業精有顯效者帶來”  
 戊辰通信使 (1748년) “能文能書能畫竝弓藝之人 精擇帶來”  
 甲申通信使 (1764년) “能文能書能畫竝弓藝之人 擇帶來”  
 辛未通信使 (1811년) “能文能書畫之人 帶來事”

이상의 기록을 통해 보면 수행화원에 대해 두나라 모두 能畫者의 차정을 원칙으로 삼았으며, 이와 같은 원칙은 하나의 기본 조건으로 매회마다 제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원칙에 의거하여 12회에 걸쳐 선발된 수행화원의 명단은 다음 일람표와 같다.

| 연대   | 간지 | 왕위    | 수행화원        | 연령       | 관직          |
|------|----|-------|-------------|----------|-------------|
| 1607 | 丁未 | 선조 40 | 李泓虬         | 40       |             |
| 1617 | 丁巳 | 광해군 9 | 柳成業         |          | 司果          |
| 1624 | 甲子 | 인조 2  | 李彦弘         | 29       |             |
| 1636 | 丙子 | 인조 14 | 金明國         | 37       | 教授          |
| 1643 | 癸未 | 인조 21 | 金明國<br>李起龍  | 44       |             |
| 1655 | 乙未 | 효종 6  | 韓時覺         | 35       | 前司果         |
| 1682 | 壬戌 | 숙종 8  | 咸梯健         |          | 前教授         |
| 1711 | 辛卯 | 숙종 37 | 朴東普         |          | 副司果         |
| 1719 | 己亥 | 숙종 45 | 咸世輝         |          | 副司果         |
| 1748 | 戊辰 | 영조 24 | 李聖麟<br>(崔北) | 30<br>37 | 主簿          |
| 1764 | 甲申 | 영조 40 | 金有聲<br>(卞璞) | 39       | 前僉使<br>東萊將校 |
| 1811 | 辛未 | 순조 11 | 李義養         | 44       | 副司果         |

이 일람표의 ( )안에 보이는 戊辰使行의 崔北(1712~1786)과 甲申使行의 卞璞은 공식 수행화원이 아닌 다른 원역으로 파견된 바 있다. 漢陽의 저명한 閭巷文人畫家였던 최북은

松岐觀海의 『來庭集』과 大岡春卜의 『畫史會要』, 朝岡興禎의 『古畫備考』, 그리고 李瀼의 『星湖先生文集』 등을 통해 도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당시 사행원 475명중 명단이 알려져 있는 中官급 이상 90명의 單子에 그의 이름이 없는 것으로 보아 下官으로 다녀온 것 같으며, 같이 동행했던 명필가 金啓升도 단자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別書寫로 택송되었듯이 그도 善畫者 別畫員으로 뽑혔던 것으로 추정된다.<sup>27)</sup> 1760년에 <釜山鎮殉節圖>와 <東萊府使殉節圖>를 그렸던 卞璞은 당시의 사행정사였던 趙曦이 동래부사로 있었을 때 신임했던 동래부 화원출신의 將校로서 格軍으로 대동하여 卜船將의 직무를 맡기기도 했으나, 실제로는 都訓導와 보직을 교대하여 江戶를 往還하면서 繪事에 관한 업무를 맡아 활동했었다.<sup>28)</sup>

이들 두 사람을 제외하면 공식 수행화원은 癸未使行 때 2명으로 증원된 적이 있어 모두 13명 선정된 바 있으나, 金明國(1600~?)이 두차례 택송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12명이 다녀왔다. 원래 계미사행의 수행화원은 당시 1643년 음력 1월 5일(이하 월일은 모두 음력임)자의 '信使之行應行諸事' 등에 관련된 문서들을 보면 전례에 따라 1명으로 책정했었고, 1월 11일에는 김명국을 병자사행에 다녀온 바 있지만 "彼中所要之人"이라 하여 차정했었다.<sup>29)</sup> 그러나 1월 5일 東萊에서 한일 양측의 실무자들에 의해 "儒者和 善寫者·畫員의 수를 늘리기로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通信使節目24條」가 講定됨에 따라 같은 달 13일에 右承旨 李倪의 명의로 사행종사자와 각 해당 관아에 절목 대로 엄히 시행할 것이 하달되었다.<sup>30)</sup> 이에 의거해 2월 12일 작성되었던 「通信使一行員役職姓名并以手本後錄」을 보면, 김명국과 함께 李起龍이 수행화원으로 추가 선정되어 나란히 이름이 올라 있음을 알 수 있다.<sup>31)</sup>

이와 같이 계미사행에 화원이 2명 증파되었던 것은 「통신사절목」에 의거한 것이다. 이 절목은 일본측에서 對馬島主를 통해 작성해 오면 우리 備邊司에서 조목조목 의논하여 왕의 재가를 정탈한 후 回啓한 것으로, 화원의 경우 일본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 들여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의 回啓에 "儒者和 善寫者·畫員의 수가 적었으니 이번에는 각색 담당자 한 두 사람씩 더하여 데려왔으면 하고, 의원도 역시 잘 택하며, 악공도 음악을 잘하는 자를 택하여 데려가야 할 것이다. ... 지난 번에 들어왔던 蓮潭(김명국)과 같은 자를 택하여 보도록 하므로 이에 의하여 시행할 것을 이미 정탈하였으니, 각 해당 관청과

27) 洪善杓, 「崔北의 生涯와 意識世界」, 『미술사연구』 5호(1991. 10) 13~14쪽 참조.

28) 趙曦, 『海槎日記』 11월 1일조, 1월 24일조 (『해행총재』 VII, 70, 157쪽) 참조.

29) 주 23과 같음.

30) 『통신사등록』 1책, 계미 1월 15일, 참조.

31) 『통신사등록』 1책 계미, 2월 12일 「通信使一行員役職姓名并以手本後錄」

통신사로 하여금 참작하여 잘 간택하여 데려가도록 할 것이다.”라고 명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화원의 증원과 함께 김명국의 재방문도 요구했던 듯하다.<sup>32)</sup> 아마도 1월 11일에 김명국을 수행화원으로 선정했었던 것도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처럼 수행화원을 증원하고 1636년의 병자사행 때 인삼을 밀매하려다 적발되어 처벌을 받았던 김명국을 다시 선발했던 것은 그 당시 일본인들의 극심한 서화구청과 일본 내에서 그의 그림에 대한 인기가 높았던 것도 배려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sup>33)</sup>

그런데 김명국은 두번째 방일했던 계미사행시 重價의 물자를 탐내고, 執政 이하의 구청에 응하기를 거절하고 도처에서 상인들의 요구만을 좇아 서화를 매매하여 일본측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귀국 후 엄하게 훈벌로 다스려졌으며, 이에 따라 수행화원의 증원은 원래의 규정대로 다시 1명으로 환원조치되었다.<sup>34)</sup> 그러나 일본 내에서의 김명국의 인기는 그후에도 여전히 높았던 듯, 1662년(현종3)에 關白(大君)의 소망이라 하면서 그의 講來를 동래부사를 통해 요구하기도 했다. 조정에서는 김명국이 연로하고 병이 들어 下送할 수 없고 대신 그의 그림을 보내주겠다고 했으나, 일본측에서는 그가 도일했을 때 매번 다른사람에게 代筆시켰기 때문에 다시 代畫해서 보낼 지도 모르니 ‘目前起畫’ 즉, 직접 그리는 것을 눈앞에서 반드시 봐야 한다고 하송해 줄 것을 간청했었다. 결국 조정에서는 그가 노병임을 거듭 내세워 허락하지 않고, 그의 ‘眞彩色 採女之畫’ 8폭과 ‘淡彩色 八仙之畫’ 즉, 〈飲中八仙圖〉 8폭, 그리고 ‘眞彩 四時大山水之畫와 人物之畫’ 8폭을 보내기로 했으며, 그림에는 제작 연월과 ‘朝鮮人 金明國寫’란 관서를 쓰고 도인을 찍도록 하였다.<sup>35)</sup>

이와 같이 김명국의 경우는 다소 특별한 예로 보일 지도 모른다. 그러나 위의 일람표에 의해 수행화원들의 면모를 일별해 보면 모두 김명국에 버금가는 당대의 대표적인 화원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이들의 차정 당시의 관직을 밝혀져 있는 자료를 통해서 볼 때, 모두 김명국과 마찬가지로 雜職 技術官으로서는 법제상의 최고 품계인 從6품이었으며, 金有聲은 화원으로서는 드물게 정3품직인 僉使까지 오른 뒤였다. 그래서 김유성의 경우 종래 堂下官에서 선발되던 관례와는 달리 堂上官이었기 때문에 기존의 수행화원과 같은 章服으로 마련하느냐 하는 문제가 왕에게 품정되어 職品대로 즉, 당상관의 장복으로 시행하라는 전교가 내리기도 했다.<sup>36)</sup> 그리고 수행화원들의 선발 당시의 나이도 기량이

32) 『春官志』 下, 「通信使節目講定別單」, “儒者善寫者畫員等數小 今番則各色加一二人帶來 … 先年入來 如蓮澤者擇送可也 亦爲爲白 有置依此爲之事已事 定奪令各該司及信使參酌 極擇捧帶去爲白齊”

33) 김명국이 인삼밀매를 위해 몰래 소지하고 있다가 발각된 사실은 任統 『丙子日本日記』 11월 18일조 (『해행총재』 III, 341쪽) 참조.

34) 『春官志』 권2, 「通信使三使及一行員役」, “金明國再入而加送一員 順治乙未減去只送一人 倭人來言前日畫員 貪於重價 只循商賣所請 執政以下之所求 則一不應 爲人所唾 命嚴飭焉”

35) 『倭人求講曆錄』 2책, 임인 2월 25일, 3월 13일, 「畫員金明國請來事」 참조.

원숙해가는 40세 전후의 장년기였던 것이다. 특히 이들은 사행을 전후하여 국가적인 회사에 많이 뽑혔던 특출난 화원들로서 지금까지 알려진 기록에 의하면, 왕실의 각종 儀軌班次圖 등의 제작에 이흥규 6회, 유성업 6회, 김명국 17회, 이기룡 12회, 한시각 19회, 함제건 12회, 박동보 5회, 함세휘 11회, 이성린 4회, 이의양 3회 선발되었으며, 함세휘와 박동보는 御容畫師에 발탁된 바 있었고, 또 이흥규와 함세휘, 박동보는 原從功臣의 훈장을 받았을 정도였다.<sup>37)</sup> 이들의 畫技에 대해서는 中山高陽(1717~1780)이 “聘使를 따라온 畫員이 妙手라”고 했던 일본측의 기록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sup>38)</sup>

이러한 사실로만 미루어 보더라도 통신사의 수행화원이 매우 뛰어난 화가로 차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善畫者極擇’의 원칙이 잘 거행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 점은 “사람들이 모두 다 아는 書法이 최고로 精熟한 자”로 뽑아 보냈던 派日 寫字官 선발의 실제 예를 통해 봐도 분명하다고 생각된다.<sup>39)</sup> 이와 같은 실상은 權悅이나 許淑 등과 같은 무명의 화원들이 차송되었던 중국사행과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통신사 수행화원의 차출이 더 비중 높게 인식되었음을 시사해 준다. 사실상 중국사행의 수행화원에 대해서는 긴요한 원역이 아니라고 하여 없애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가 품계되기도 했었다.<sup>40)</sup>

통신사행의 수행원역으로 선발되었던 화원들은 이처럼 能畫者였을 뿐 아니라, 이들의 대부분이 도일 경력이 있는 화원집안이나 또는 사행의 실무를 담당했던 역관과 관련이 있는 집안의 출신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이러한 관계를 『畫寫兩家譜錄』 중, 「慶州 李氏」, 「全州 李氏」, 「仁同 張氏」, 「清州 韓氏」, 「江陵 咸氏」, 「慶州 金氏」, 「安山 李氏」 등의 略譜를 통해 살펴보면, 공식 수행화원 12명 가운데 9명이 이와 같은 배경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9명을 사행순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정미사행의 이흥규(1568~?)는 조선초기부터 대를 이어 화원집안을 형성했던 경주 이씨로, 그의 아버지 壽亨, 祖父 正根, 曾祖父 明修, 모두 화원이었으며, 그의 아들이 바로 계미사행 때 김명국과 같이 수행화원으로 선발되었던 李起龍(1600~?)이다. 정사사행의 유성업은 화원 柳澄의 아들이며 李正根의 고모부였다. 갑자사행의 이언홍(1596~?)은 역관으로 종3품 同樞에 올랐던 張挺立과 사돈간이었으며, 그의 사위 張後堪도 역관이었다. 그리고 장후감의 동생인 後巡 역시 역관이었는데, 그는 임술사행의 수행화원 함제건의 매부였다. 그런데 이언홍과 사돈관계를 맺었던 인동 장씨 집안은 역관 뿐 아니라, 忠明—子

36) 『승정원일기』 1216책, 영조 29년 계미 3월 13일 경오, “璘曰 信使行所帶去寫字官及畫員 自前多以堂下率去 故章服 亦隨品磨鍊上下矣 今番則洪聖源金有聲 俱非曹欲待稟定後上下 … 上曰依職品”

37) 『嘉禮都監儀軌』, 『冊禮都監儀軌』, 『靖社原從功臣錄』, 『奮武原從功臣錄』 참조.

38) 中山高陽, 『畫談鷄肋』 (坂岐坦, 『日本畫の精神』, 東京堂, 1942, 143쪽) 참조.

39) 주 17과 같음.

40) 『영조실록』 권73, 27년 신미, 10월 정묘조 참조.

旭—得萬—師周. 敬周—編—漢宗 등으로 이어지면서 수많은 화원을 배출했던 조선후기 최대의 증인기술관 가문이었다.<sup>41)</sup>

기미사행의 한시각(1621~?)은 정3품 通政을 지낸 화원 韓善國의 아들로서, 그의 삼촌 悌國. 信國과 동생 時振, 사위인 李明郁 모두 화원이었다. 그리고 그의 큰아버지 韓相國은 병자사행과 계미사행의 次通事로 일본에 다녀왔을 뿐 아니라, 그후에도 對馬島를 왕래한 일본통의 역관이였다.<sup>42)</sup> 임술사행의 함세건은 강릉 함씨 집안 출신으로 아버지 慶龍은 종2품 同樞에 조부 德男은 정3품 僉樞에까지 올랐던 화원이었다. 그의 누나는 조선후기를 통해 역관과 화원을 가장 많이 배출했으며, 갑자사행의 수행화원 이언홍과 사돈관계를 맺었던 인동 장씨 挺立의 집안으로 시집갔으며, 그의 외아들은 기해사행의 수행화원인 함세휘였다. 함세휘는 경주 김씨 普立—斗元—大成으로 이어지던 역관집안의 사위이기도 했다. 그리고 함세건의 외증손인 이성린(1718~1777)도 무진사행의 수행화원이었다. 이성린은 전주 이씨 彦謙. 彦瑞—順吉—益茂. 益苾—壽奎로 대를 이어 내려오던 역관집안의 출신이었는데, 특히 이언서는 1607(선조40)년 1월에 일본과의 통교를 위해 대마도에 다녀왔으며,<sup>43)</sup> 갑자사행에는 首譯으로 도일했었다. 신미사행의 이의양(1768~?)도 아버지 學洙와 큰아버지 學源 모두 역관이었으며, 형들은 사자관이었고 아들은 조선말기의 대표적인 화원 李漢喆(1808~?)이었다.

이상에서 수행화원들의 家系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이들은 역관집안이나 일본에 다녀온 적이 있는 화원집안에서 주로 선발되었음을 알 수 있겠다. 이러한 양상은 통신사 수행사자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역관·사자관을 많이 배출했던 전주 이씨 貞 집안에서 三錫(임술사행), 爾芳(신묘사행), 日芳(기해사행), 彦祐(갑신사행) 등 4명이 차출되었고, 이밖에 金信男(갑자사행), 金義信(계미·을미사행), 李壽長(신묘사행), 洪聖源(갑신사행) 등도 같은 배경을 갖고 있었다.<sup>44)</sup>

이처럼 수행화원이 도일화원 집안과 함께 사행에 관한 제반거래사를 주도하던 실무자인 역관집안에서 주로 배출되었다는 것은 이들의 선발에 能畫的 역량뿐 아니라, 외국으로의 파견이라는 특수한 여건도 고려되었음을 시사해 준다. 다시 말해서 국가적인 체모가 걸려 있는 사행과 관련된 경험이 풍부한 집안 배경도 참작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후기의 통신사행은 문화사절단의 성격을 질게 띠고 詩

41) 金良洙, 「朝鮮後期 中人집안의 活動研究」, 『實學思想研究』 2 (1991. 3), 55~57쪽 참조.

42) 『인조실록』 권47, 24년 병술, 12월 갑오, “遣譯官李亨南韓相國 隨倭使問慰對馬島主”

43) 『선조실록』 권207, 40년 정미, 정월, 무인, “在前對馬島主往還 或有論賞之事…譯官判官李彦瑞以當本衙門 高品職除授”

44) 『畫寫兩家譜錄』, 「全州李氏」, 「金海金氏」, 「天安李氏」, 「南陽洪氏」 略譜 참조.

文書畫에 재능을 지닌 문화지식인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그중에서도 근세 한·일간 회화교류의 주역으로 활약했던 수행화원은 “能畫者極擇”의 원칙 하에 畫技가 뛰어난 도화서의 전·현직 요원이면서 도일경력이 있는 화원집안이거나, 사행의 실무를 맡았던 역관 집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물들로 차출했었다. 이러한 양상은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했던 일본측의 요청에 응하면서 自國의 문화적 자부심을 과시하고 그 외연적 확산을 통해 양국간의 평화상태를 존속시키고자 한 조선왕조의 ‘南邊事’로 지칭되던 현실대응적 對日관계의 한 방책으로 이해된다.

### Ⅲ. 隨行畫員의 역할

통신사 수행화원의 사행 중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는 규정은 없다. 그리고 『通信使臚錄』을 비롯하여 『朝鮮王朝實錄』과 『承政院日記』, 『備邊司臚錄』 등의 관찬사료에도 이에 관련된 기사는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의 방일 중 행적을 통해 대강 유추해 볼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사행화원의 역할과 관련하여 우선 주목되는 것은 갑신사행의 화원 김유성에게 일본지도 改正本을 그리게 하고, 또 동래부 소속화원으로 동행했던 변박에게 대마도지도와 일본의 지리도형을 모사케 한 일이다.<sup>45)</sup> 그리고 변박에게는 淀浦에서 본 스스로 돌면서 물을 퍼서 통에 부어 성중으로 보내는 水車모양의 물레방아를 그대로 그리게 하기도 했다.<sup>46)</sup> 이와 같이 지도나 기물 등을 모사하는 繪事는 말이나 글로 형용하는 것보다 더 명확하게 전달하고 알려주는 시각적 매체로서의 기능을 지닌 繪圖로서 기록하는 畫習으로 조선시대 화원들의 기본업무 중의 하나였다. 그리고 파견되는 나라의 지형 등을 그리는 것은 북송의 蘇軾이 고려사신의 왕래가 중국에 해롭다는 여러 가지 이유를 황제에게 상소하면서, 고려사신들은 화원을 데리고 와서 중국의 산천을 그려가는데 이것은 안보상 매우 불리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던 점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상대국의 정세를 파악하고 국방적 또는 군사적인 대책에 사용할 목적으로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왔던 것이다.<sup>47)</sup>

아마도 이와 같은 정세 파악과 국방적 대비의 목적은 1592년의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더욱 중요했었기 때문에 앞서 잠시 언급했듯이 1590년의 경인통신사행 이후로 이러한 제도를 정례화시키게 된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이러한 측면에서의 추측은 화원 金應煥(1742~1789)집안의 내력이 담겨있는 『金氏家譜』의 다음과 같은 기

45) 趙曦, 『海槎日記』 1월 24일조, 10월 10일조 (『해행총재』 VII, 157쪽) 참조.

46) 穉穉, 1월 29일조, (『해행총재』 VII, 157쪽) 참조.

47) 安輝濬, 「高麗 및 朝鮮初期의 對日繪畫交涉」, 『亞世亞學報』 13, (1979. 11) 참조.

록도 참고가 된다.

(김응환은) 정조 12년 戊申(1788)에 왕명을 받들고 금강산내외산을 모화하고 돌아와 그 다음해인 己酉(1789)에 다시 왕명을 받들고 일본에 건너 가는 것을 가장하여 몰래 지도를 그려 오려고 했으나, 부산에 이르러 병을 얻어 일어나지 못하니 나이 48세였다. 그때 金弘道가 동행했으므로 喪事를 치르고 혼자 대마도에 건너가 그 그림을 그려 돌아와 바쳤다.<sup>48)</sup>

이 기록에 의거하면 정조년간 최고의 화원이었던 김응환과 김홍도(1745~?)가 일본의 지형을 그려오라는 밀명을 받았던 듯하며, 또 내용으로 보아 정세과악 등, 국가적인 機務와 관련된 역할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만일 이 기록이 사실이라면, 1789년(정조13)은 德川幕府의 새로운 將軍(大君)의 습직을 축하하기 위한 통신사의 파견이 1788년 10월에 일본측의 연기 통보로 2세기 간에 걸친 양국의 선린외교 체제가 크게 동요하기 시작한 때였으므로, 對日關係의 대책 등이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어 있었던 상황과 어떤 연관을 가지고 이루어졌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sup>49)</sup>

수행화원의 이러한 기록물 제작의 역할과 관련하여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槎路勝區圖》 30폭과 〈通信使行列圖〉도 주목된다. 종이 위에 淡彩로 그려진 《槎路勝區圖》는 현재 15폭씩 (각폭 35.2×66.7cm) 2개의 긴 두루마리로 표구되어 있는데, 그 중 〈富士山圖〉에 적혀있는 “六月 十七日”이란 날짜에 의거하여 1748년의 戊辰信使行時의 작품으로 파악되고 또 당시의 수행화원 이성린이 그렸던 것으로 추정된다.<sup>50)</sup> 30폭 모두가 부산에서 대마도를 거쳐 江戶에 이르는 路程의 勝景과 주요광경 및 행사 등을 묘사한 것으로,<sup>51)</sup> 기록화의 성격이 강한 실경풍속화 내지는 기행사경화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이 公務로 여행하면서 각 지역의 경관과 路程의 주요장면 등을 그림으로 기록했던 것은 사행을 마치고 돌아와 종사관 등이 방일 중 보고 듣고 수집한 정보 등을 「見聞錄」에 기재하여 보고할 때 보다 명확하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정례적인 繪事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종이에 채색으로 그려진 옆으로 긴 〈通信使行列圖〉(30.6×595cm) 두루마리는 《槎路勝區圖》보다 더 기록적인 성격을 띤 班次圖 계통으로, 행렬의 순서와 배치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다.<sup>52)</sup> 일본화가들의 통신사행렬도들과는 달리 행렬의 방향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개되는 조선시대 반차도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 이 행렬도는

48) 『金氏家譜』, 「復軒 金應煥」, “以畫名於世 正祖十二年戊申 奉命遍行金剛內外山 摸畫而還 翌年己酉又奉命擬往日本 潛寫地圖 至釜山遭疾不起壽四十八 時金弘道年少隨行 經理喪事 獨往對馬島 寫其圖而還獻”

49) 三宅英利, 앞책, 404~409쪽 참조.

50) 李元植, 『朝鮮通信使』(民音社, 1991) 377~378쪽 참조.

51) 山內長三, 「朝鮮通信使の紀行-槎路勝區圖卷にへいて」, 『月刊韓國文化』8-6(1980. 6) 참조.

52) 『朝鮮時代通信使』(國立中央博物館, 1986) 도판14.

1977년에 개최된 「국립중앙박물관소장미공개회화특별전」에 처음 출품되었던 것으로, 당시 19세기경 작품으로 소개되었다.<sup>53)</sup> 그리고 1986년의 「朝鮮時代通信使展」에서는 “丙子信使韓國使臣入皇城行繪卷”이란 표제에 의해 1636년의 병자사행을 그린 것으로 수정 소개했었다.<sup>54)</sup> 그러나 이 표제는 일제시대에 써진 것일 뿐 아니라, 행렬도의 양식 자체가 17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 행렬도에 그려져 있는 원역들의 직명에 역관이 4명, 서기 3명, 良醫 1명, 의원 2명이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1711년의 신묘사행을 圖繪한 것으로 생각된다.<sup>55)</sup> 그렇다면, 이 행렬도는 당시 수행화원이었던 朴東普의 작품으로 추정되는데, 6m나 되는 긴 두루마리에 500명이 넘는 인원을 그려넣는 이러한 작업을 방일 중의 바쁜 여정 속에서 수행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사행중에 草本을 마련한 후 귀국하여 제작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아무튼 이러한 통신사행렬도반차도의 제작도 수행화원이 해야 할 역할 중의 하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수행화원들은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공무적인 기록물 제작 이외에 삼사 등의 청탁에 의해 私인 紀行 관련 繪事를 수행하기도 했었다. 그 대표적인 예로 1655년 기미사행의 수행화원 한시각이 종사관 南龍翼의 부탁에 의해 그렸던 《扶桑詩畫帖》을 들 수 있겠다.<sup>56)</sup> 이 《부상시화첩》은 남용익이 노정 중에 자연경관을 보고 읊은 시에 한시각이 寫景圖를 그려 넣었던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 중에는 富士山을 묘사한 것도 있었던 모양이다.<sup>57)</sup> 그리고 1764년 갑신사행의 정사 조엄도 藍島의 절경에 심취하여 수행화원(김유성)에게 그 ‘眞景’을 그리도록 청탁하려 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른바 “倭國之形勝”을 사생하는 일이 상당히 보편화되었던 것이 아니었나 싶다.<sup>58)</sup> 이밖에도 수행화원들은 대마도주 등의 청탁에 의해 草花圖와 같은 일본화를 모사하기도 했으며, 최복은 〈延子髮齡依母圖〉를 모사해 가져오기도 하였다.<sup>59)</sup>

그러나 近世 한·일회화교류와 관련하여 보다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문화사절단으로서의 성격을 짙게 띠고 있었던 당시 통신사행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수행

53) 『國立中央博物館所藏未公開繪畫特別展』(國立中央博物館, 1979) 도판 216 참조.

54) 『朝鮮時代通信使』 36쪽, 참조.

55) 신묘통신사행의 주요 대동원역인원과 행렬도의 인원이 일치한다. 任守幹, 『東槎日記』, 「辛卯通信使座目」 참조.

56) 주 1과 같음.

57) 남용익의 아들 南聖重이 신묘통신사행의 종사관 서기로 방일하여 富士山에 대해 읊은 시, “... 昔我先君畫一本 早見螺髮出雲浮”를 통해 확인된다.

58) 趙職, 앞책, 12월 21일 (『해행총재』 VII, 120쪽) 참조.

59) 曹命采, 『奉使日本時間見錄』 5월 29일 (『해행총재』 x 166쪽) : 劉復烈, 『韓國繪畫大觀』(文教院, 1969), 592쪽 및 도판 406 참조.

화원의 역할은 일본인들의 書畫求請 등의 수요에 응하면서 문화적인 유대관계를 증진시키고 평화적인 선린우호 상태를 유지시키는 일이었다.

통신사일행이 방일하면 接伴僧과 接待儒者를 포함한 일본의 지식인들은 우리 사행원들과 筆談이나 詩文의 贈答, 그리고 書畫의 求請 등을 다루어 원했기 때문에 이에 응대하느라 화원을 비롯한 사행원들은 5~8개월 가량의 대마도에서 藍島—下關—牛窓—大阪—京都—名古屋—靜岡 등을 거쳐 江戸를 왕래하는 노정에서 심한 문화적 고초를 겪어야 했다. 이에 관한 사례들은 통신사행원들의 기행문 등에 빈번히 보이고 있는데, 가령 1682년의 임술사행 역관 金指南은 그의 『東槎日記』에, “그 나라의 執政에서부터 심부름하는 倭人, 선비나 승려 등, 호사하는 무리들에 이르기까지 견딜 수가 없었다”고 적은 바 있다.<sup>60)</sup> 이 기록에 의하면 조선인 서화에 대한·욕구가 비단 지식인들에만 국한되었던 것이 아니라 각계 각층을 망라한 큰 관심이었던 것도 아울러 알 수 있겠다.

이러한 서화구청은 大阪 이후의 육로에서 더욱 본격화되었던 듯, 작자미상의 『癸未東槎日記』(1643)에선 “大阪을 지나서부터 일본인들이 종이를 가지고 글씨나 그림을 요구하는 者가 수없이 많아졌다. 그러므로 글씨 쓰는 관원이나 그림 그리는 관원은 잠시도 쉴 사이가 없다”고 하였다.<sup>61)</sup> 1719년 기해사행의 제술관이었던 申維翰은 “점점으로 쌓인 종이가 구름과 같았고 꽃힌 붓이 수풀과 같았으나 잠깐 동안에 바닥이 나면 다시 들어온다”고 말했다.<sup>62)</sup> 이와 같이 서화구청을 위해 몰려드는 일본인들 때문에 화원과 사자관들은 잠시 쉴틈도 없었을 뿐 아니라, 밤잠조차 제대로 자지 못하고 새는 경우가 많아서 김명국 같은 화원들은 그 고통을 참지 못하고 울려고까지 했을 정도였다.<sup>63)</sup> 그래서 幕府에서는 이처럼 극성스러운 서화구청 행위를 규제하기도 했었다. 1682년에는 통신사 來聘時 행중 접근을 금하기도 했으나, 구청하는 사람이 많아 이를 막을 길이 없어서 額子일 경우 2·3매 정도로 제한한 적도 있었고, 1711년부터는 조선인의 서화를 희망하는 사람은 대마도 역원을 통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기도 했다.<sup>64)</sup> 이에 따라 사행원들과의 접촉은 대마도 관계자들에 의해 통제되었으며, 이들 대마도인들은 출입을 원하는 사람들을 조정하여 뇌물을 요구하기도 하고, 또 자신들이 받아내어 비싼 값으로 팔기도 했었다.<sup>65)</sup>

60) 金指南, 『東槎日記』 8월 21일 (『해행총재』 VI, 274쪽) 참조.

61) 『癸未東槎日記』 6월 15일 (『해행총재』 V, 258쪽), “大阪以後 倭人持牋求書畫者無算 寫字官畫員無一時休息”

62) 申維翰, 『海槎錄』 10월 25일 (『해행총재』 I, 548쪽) 참조.

63) 金世濂, 『海槎錄』 11월 14일 (『해행총재』 IV, 72쪽), “倭人求書畫者 日夜塗集 朴之英趙廷珪金明國 不勝其苦 金明國至欲出涕”

64) 三宅英利, 「李氏孝宗朝日本通信使考」, 『北九州大學文學部紀要』 (B系列) 3-1 (1970) 28쪽; 李元植, 앞책, 59쪽 참조.

65) 趙巖, 앞책, 1월 11일 (『해행총재』 VII, 138쪽) : 曹命采, 『奉使日本時間見錄』 4월 6일·12일 (『해행

이와 같이 일본인들은 통신사 수행화원이나 원역들의 서화를 가장 좋아하여 비록 한 조각이라도 얻으면 주옥같이 여겼고, 우리 사행원들도 이러한 간절한 요청에 괴롭기는 하지만 기쁨 또한 금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sup>66)</sup> 이처럼 각계 각층을 망라한 일본인들이 통신사행원들의 서화구득에 지나칠 정도로 열을 올렸던 것은 당시 쇄국체제 하에서의 외국문화 접촉에 대한 갈망과 임진왜란 등을 통해 증대된 조선문화에 대한 관심, 그리고 시·서·화 등 고급문화에 대한 기호의 확산 등에 연유되었다고 본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에서 논의할 예정이지만, 儒者, 문사 등의 일본 신지식인들이 주자학적 문인풍 조선문화를 중화문화의 대항적 수준으로 보고 그 선진성을 섭취하기 위해 적극적이었던 데 비해, 일반인들은 통신사행을 거국적인 축제의 하나로 여기고 조선인들의 필적 즉 서화나 시문 등을 얻어 두면 얼마다 반드시 성취하며 복이 온다는 속설을 널리 신봉했던 듯하다.

그러나 우리측 인사들은 조선인 서화를 간직하고 있으면 복록이 온다고 믿었던 일본인들의 속설을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무시하고, 우리를 예의의 나라로 존귀하게 여겨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으로 부족하여 그 필적까지 애호하게 된 것으로 이해했었다.<sup>67)</sup> 이러한 인식에는 중화문화를 대항한다는 小中華意識에 기초한 自國의 문화적 자부심을 선양·과시하고 그 외연적 확산과 접촉을 통해 일본과의 (중화)문화적 유대관계를 증진시켜 무력적·이질적 오랑캐습성을 교화하고 중화질서에 기반을 둔 선린우호체제를 유지시킴으로써, 임진왜란의 악몽에서 야기된 재침의 위협과 전쟁의 고통을 방지코자 했던 궁극적인 목적의식이 작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sup>68)</sup> 당시 우리측에서 일본인들의 시문증답이나 서화구청에 힘들어하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적극 응대하고 또 수행화원을 포함한 원역들의 이러한 역할을 크게 중시했던 것도 이와 같은 배경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다. 결국 두 나라의 이러한 이해관계의 부합에서 수행화원을 비롯한 그림에 재능을 지닌 사행원들의 방일 중의 회화활동을 크게 촉진시키면서 동아시아 회화권에서의 새로운 교류증진과 관계를 전개시켜 나갔던 것으로 파악된다.

총재』 X, 83·193쪽) 참조.

66) 南龍翼, 『扶桑錄』 7월 22일 (『해행총재』 V, 410쪽), “求之者晝夜填擁 書畫人等 不勝其苦 亦不勝其喜矣”

67) 趙曦, 앞책, 1월 11일 (『해행총재』 VII, 410쪽), “其或以朝鮮禮儀之邦尊貴之 愛其人不足 至愛其筆跡而然那”

68) 洪善杓, 「十七·十八世紀의 韓·日間 繪畫交涉」, 『考古美術』 143·144(1979. 12), 22-24쪽 참조.